1부 세 가지 일반 원리

죄 죽이기 4편 신앙에 힘이 없는 이유 · 죄 죽이기와 영적 활력

1부 4장 「죄를 죽이기 위한 세 번째 일반 원리」(67~73쪽)

> ❓ **교회는 꼬박꼬박 다니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고 마음에 평안이 없을까?**

🧭 흐름 한눈에

오웬은 신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바라는 것을 힘·위로·능력·평안으로 꼽고, 이것들이 죄 죽이기에 “크게” 달려 있다고 말한다. 곧이어 두 가지 선을 긋는다. 첫째, 죄 죽이기가 평안을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시편 88편의 헤만). 둘째, 위로를 직접 일으키는 원인은 양자됨과 칭의, 그리고 성령의 증언이다. 그러면서도 매일의 동행에서는 죄 죽이기가 결정적이라고 한다. 죽지 않은 죄는 영혼을 약하게 하고 어둡게 만든다. 죄의 잡초를 뽑아야 은혜의 약초가 자라고, 자기 자신과 싸우는 그 자리에서 신앙의 진실함이 드러나며 그 위에 평안이 선다. 마지막으로 1부의 세 원리는 한 그림으로 모인다. 누구나 평생 해야 하고(원리 1), 성령으로만 할 수 있으며(원리 2), 그 열매가 영적 활력과 위로다(원리 3).

- **지침 카드**

📜 절별 정리

📜 1.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 힘과 평안 (4장)

아니면 마음에 위로와 평안이 없다는 것이다. 오웬은 신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바라는 것이 결국 힘·위로·능력·평안이라고 정리한다. 그리고 이것들이 끊임없는 죄 죽이기에 크게 달려 있다는 것이 세 번째 원리다. 이 원리는 시리즈의 기초 구절 로마서 8:13의 “살리니”가 오늘 내 삶에서 어떤 모습인지 보여 준다. 산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만이 아니라 지금 누리는 생기와 위로까지 포함한다.

1. 신자의 고민은 결국 둘: 힘 없음, 평안 없음
2. 바라는 네 가지: 힘·위로·능력·평안
3. 이 모두가 죄 죽이기에 크게 달려 있음
4. 로마서 8:13 “살리니”의 오늘 모습

> ★로마서 8:13
>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산다'에는 지금 누리는 영적 활력과 위로도 들어 있다

📜 2. 그러나 자동 보장은 아니다: 헤만의 예 (4장)

오웬은 원리를 말하자마자 오해를 막는 선을 긋는다. 죄를 열심히 죽이면 평안이 자판기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다. 시편 88편의 헤만은 하나님과 성실히 동행한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어릴 적부터 고난과 하나님의 두려우심 속에 살았다고 탄식한다. 오웬은 하나님이 오히려 그를 환난 겪는 모든 사람의 본보기로 세우셨다고 말한다. 그러니 같은 처지에 있는 신자는 불평하지 말아야 하고, 그 삶은 마지막 날에 영광이 될 것이다. 위로하고 평안을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다(이사야 57:18-19).

1. 죄 죽이기와 평안은 기계처럼 묶이지 않음
2. 헤만: 성실히 동행했지만 평생 두려움
3. 그래도 그는 환난 겪는 자의 본보기
4. 평안을 주심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
5. 우리 몫은 수단을 성실히 쓰는 것

[1]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2]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3]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4]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5]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6]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

시편 88:15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하는 헤만의 고백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이사야 57:18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사야 57:19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평안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선물이다

"평안을 얻는 수단들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평안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대권이다."

📜 3. 위로의 뿌리는 내 성적이 아니라 양자됨과 칭의다 (4장)

오웬은 한 걸음 더 구분한다. 죄 죽이기는 위로를 직접 만들어 내는 원인이 아니다. 위로와 담대함의 직접 원인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곧 양자됨과 칭의다. 오웬은 요한계시록의 "흰 돌과 새 이름"이라는 그림을 빌려 이것을 표현한다. 성령께서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실 때, 영혼은 그 특권을

가리는 것을 “치우는” 일이다. 이 구분 덕분에 죄 죽이기는 성적표가 되지 않고, 이미 자녀 된 사람이 그 기쁨을 되찾는 길이 된다.

1. 죄 죽이기는 위로의 직접 원인이 아님
2. 직접 원인: 양자됨과 칭의
3. 성령이 자녀 됨을 증언하실 때 위로가 옴
4. 죄 죽이기는 위로를 막는 것을 치움
5. 위로를 버는 일이 아니라 되찾는 길

> **로마서 8:16**
>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자녀 됨을 증언하신다. 위로의 직접 근원이다
>
>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 **요한계시록 2:17**
> “흰 돌과 새 이름”. 오웬이 장절 표시 없이 빌린 그림으로, 양자됨과 칭의를 가리킨다
>
>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 4. 죽지 않은 죄는 영혼을 약하게 한다 (4장)

그렇다고 죄 죽이기가 위로와 상관없는 것은 아니다.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에서는 영적 활력이 죄 죽이기에 크게 좌우된다. 첫째 이유는, 죽지 않은 죄가 반드시 영혼을 약하게 하기 때문이다. 다윗은 죄를 품고 있을 때 “내 살에 성한 곳이 없고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 “우러러볼 수도 없다”고 탄식했다. 오웬은 죄가 영혼을 약하게 하는 방식을 셋으로 설명한다. ① 감정을 흐트러뜨려 욕망의 대상을 사랑스럽게 보이게 하고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밀어낸다. ② 생각을 점령해서, 영혼에 양식을 날라야 할 생각이 육체의 욕망을 채울 궁리만 실어 나르게 한다. ③ 하나님을 섬기는 데 써야 할 힘을 출세나 돈이나 헛된 즐거움 쪽으로 빼돌려 의무를

1. 죽지 않은 죄는 반드시 영혼을 약하게 함
2. 감정: 하나님 사랑이 밀려남
3. 생각: 욕망의 궁리만 실어 나름
4. 의무: 섬길 힘이 엉뚱한 데로 샘
5. 다윗: 죄를 품자 뼈에 평안이 없음

> **시편 38:3**
>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품은 죄가 힘을 무너뜨림
>
>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 **시편 38:8**
>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매”. 죄로 쇠약해진 영혼
>
>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매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 **시편 40:12**
>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므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하나님을 바라볼 힘마저 잃음
>
>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므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 **요한일서 2:15**
>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욕망이 하나님 사랑을 밀어냄
>
>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 5. 죽지 않은 죄는 영혼을 어둡게 한다: 다른 처방은 소용없다 (4장)

하나님의 자녀라는 감각이 흐려지고, 위로가 될 생각들을 모아도 금세 흩어져 버린다. 3절에서 말한 위로의 직접 원인(자녀 됨)을 누리지 못하게 막는 것이 바로 이 구름이다. 그러니 죄를 다루지 않은 채 부르짖고 이런저런 방법을 써 봐도 낫지 않는다. 호세아서의 에브라임과 유다는 자기 병을 알았지만 엉뚱한 데서 고침을 찾았고, 죄를 뉘우치기 전까지 아무 소용이 없었다. 구름이 해를 가려도 해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자녀 됨이라는 사실은 그대로이고, 가린 것을 걷어 내야 할 뿐이다.

1. 죄는 하나님 사랑을 가리는 먹구름
2. 자녀 됨의 감각과 위로를 흩어 버림
3. 죄를 둔 채 다른 처방은 소용없음
4. 병을 아는 것 ≠ 바른 치료
5. 구름이 가려도 해(자녀 됨)는 그대로

> **호세아 5:13**
> 병을 알고도 앗수르에게서 고침을 찾음. 잘못된 처방의 예
>
>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앗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 **호세아 5:15**
>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죄를 직접 다루는 것이 참 치료다
>
>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 **로마서 8:16**
> 죄가 가로막는 것이 바로 성령이 증언하시는 자녀 됨의 감각이다
>
>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둘째 이유로 오웬은 죄 죽이기를 은혜의 가지치기라고 부른다. 귀한 약초를 심어 놓고 돌보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해진다. 약초는 살아 있어도 말라서 쓸모가 없고, 애써 찾아야 겨우 보이며 그게 맞는 약초인지 확신하기도 어렵다. 반대로 척박한 땅이라도 잡초를 꾸준히 뽑으면 약초가 무성해져서 한눈에 보이고 필요할 때 쓸 수 있다. 성령이 심으신 믿음·사랑·열심도 그렇다. 죄 죽이기를 소홀히 하면 은혜가 남아 있어도 시들어 죽어 가는 상태가 된다. 부패한 본성은 잡초가 잘 자라는 흙이어서 잡초가 날마다 돋으니, 날마다 뿌리째 뽑아야 한다. 핵심은 잡초를 뽑는 손이 아니라 약초가 자라는 것, 곧 은혜가 살아나는 것이다.

1. 죄 죽이기 = 은혜의 가지치기
2. 잡초에 덮인 약초: 살아도 쓸모없음
3. 소홀하면 믿음·사랑·열심이 시듦
4. 잡초는 날마다 돋으니 날마다 뽑기
5. 목표는 뽑기가 아니라 은혜의 자람

> **요한계시록 3:2**
>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살아 있지만 죽어 가는 은혜
>
>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 **잠언 24:30-31**
> 가시덤불과 거친 풀로 덮인 게으른 자의 밭. 오웬이 장절 없이 빌린 그림
>
> 30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31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 7. 자기와 싸우는 자리에서 진실함과 평안이 선다 (4장)

셋째 이유는 평안에 관한 것이다. 오웬은 죄를 죽이지 않는 마음에서는 진실함, 곧 신앙이 겉치레가 아니라 참되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단언한다. 진실함은 평안의

주는 것도 없다. 이것은 “완벽하게 이겨야 진짜 신자”라는 말이 아니다. 싸우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진실함의 증거라는 말이다. 갈라디아서 5:17이 말하듯, 성령과 육체가 맞서 싸운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표시다.

1. 죄 죽이기 없이는 진실함의 증거 없음
2. 진실함은 평안의 토대
3. 숨은 자리의 싸움이 진정성을 드러냄
4. 완벽한 승리가 아니라 싸움이 증거
5. 싸움 = 성령이 계신다는 표시

> **★갈라디아서 5:17**
> 육체와 성령이 서로 대적한다. 오웬이 말하는 “자아에 맞선 싸움”의 배경으로 함께 읽을 구절이다(이 단락에서 오웬이 직접 인용하지는 않음)

“죄를 죽이는 것은 영혼이 자아에 대항하여 격렬하게 저항하고 싸우는 것”

📜 8. 1부 한 그림: 왜·누구로·무엇을 (2~4장)

1부의 세 원리는 로마서 8:13 한 구절 위에 놓인 세 기둥이다. 원리 1(2장)은 “왜·누가”에 답한다. 죄의 정죄에서 확실히 벗어난 가장 뛰어난 신자라도 평생 죄 죽이기를 자기 일로 삼아야 한다. 원리 2(3장)는 “누구로”에 답한다. 죄 죽이기의 유일하고 충분한 주체는 성령이시고, 그분 없이 쓰는 방법은 헛되다. 원리 3(4장)은 “무엇을 얻나”에 답한다. 영적 활력과 위로와 평안이 이 싸움에 크게 달려 있다. 세 원리를 합치면 이런 그림이 된다. 이미 자녀 된 사람이(칭의·양자됨), 성령을 의지해(성령의 내주), 날마다 잡초를 뽑으며, 은혜가 자라고 평안이 서는 것을 경험한다. 다음 2부에서 오웬은 “그렇다면 죄 죽이기란 정확히 무엇인가”를 묻는다.

1. 원리 1: 가장 뛰어난 신자도 평생
2. 원리 2: 오직 성령으로

4. 세 원리 모두 로마서 8:13 위에

5. 다음은 2부: 죄 죽이기란 무엇인가

> **★로마서 8:13**
> 신자에게(너희), 성령으로(영으로써), 생명을(살리니). 세 원리를 한 구절에 담고 있다

> **★골로새서 3:5**
>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신자에게 "죽이라"고 명령한다. 원리 1의 근거

- **착각과 진짜 비교판**

이것은 죄 죽이기가 아니다	이것이 죄 죽이기다
죄는 그냥 두고 큐티·예배 횟수만 늘려 힘을 되찾으려 함	힘을 빼앗는 그 죄를 직접 다룸. 죽지 않은 죄는 영혼을 약하게 하고 어둡게 한다
열심히 싸웠으니 평안이 당장 와야 한다는 보상 계산	수단은 성실히 쓰고 평안은 하나님께 맡김(헤만)
죄를 이겨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다는 생각	이미 자녀이기에 싸움. 위로의 뿌리는 양자됨과 칭의
"은혜가 살아 있으니 작은 죄쯤은" 하는 방치	날마다 잡초를 뽑아 은혜가 자랄 자리를 냄
죽지 않은 죄 → 영혼이 약해지고 어두워짐	죽인 죄 → 은혜가 자라고 평안이 옴

죄 죽이기는 나를 벌주는 고행이나 끝없는 자책이 아니다. 오웬이 그리는 그림은 자녀가 아버지의 햇살을 가리는 구름을 걷어 내는 일, 정원사가 약초를 살리려고 잡초를 뽑는 일이다. 그 일을 하시는 주체도 성령이시다(원리 2).

⚖️ **오해와 반론**

📖 용어

죄 죽이기
내 안에 남은 죄의 뿌리를 성령 안에서 날마다 약하게 만들어 끝내 이기는 일.

내재하는 죄
구원받은 뒤에도 신자 안에 남아 계속 죄 쪽으로 끌어당기는 부패한 본성.

정욕(욕망)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사랑하고 원하게 만드는 마음의 끌림으로, 성적 욕망만 뜻하지 않는다.

칭의
그리스도의 의 덕분에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단번의 은혜.

성령의 내주
성령께서 신자 안에 머무르시며 새 생명을 주시고 이끄시는 일.

양자됨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녀로 받아들이셔서 자녀의 이름과 권리를 주신 것.

은혜(들)
성령이 신자 마음에 심으신 믿음·사랑·열심 같은 새 성품. 오웬의 비유에서는 '약초'다.

하나님의 대권
오직 하나님만 가지신 고유한 권한. 여기서는 평안을 말씀하시고 주시는 권한을 말한다.

진실함
신앙이 겉모양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참된 상태로, 평안의 토대가 된다.

💬 청년의 삶으로

✅ 이 편의 결론

- 영적 활력과 위로는 죄 죽이기에 크게 달려 있지만, 평안은 자동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 위로의 뿌리는 양자됨과 칭의다. 죄 죽이기는 그것을 가리는 구름을 걷는 일이다.
- 죽지 않은 죄는 영혼을 약하고 어둡게 하고, 날마다 뽑힌 죄의 자리에서 은혜가 자란다.
- 자기와 싸우는 그 자리에서 진실함이 드러나고, 그 위에 평안이 선다.
- 1부 정리: 누구나 평생, 오직 성령으로, 그 열매는 활력과 위로다(로마서 8:13).

📚 이 편의 장별 정리 노트

- 죄 죽이기 · 4장 세 번째 일반 원리: 죄 죽이기는 영적 생명과 활력을 얻게 해준다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오웬 『죄 죽이기』(CH북스, 박문재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 전문 텍스트판과 서재 정리본은 pdf.quritan.com 에 있습니다.